

낮선 고국에서 맞이한 첫 번째 온기

재능기부 스토리

중도입국 청년 홀로서기 지원

세 개의 아르바이트로 지명하는 대학생 딸의 효심

20대 중반 김모 씨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우리나라로 시집와서 그를 낳고 생활을 해 왔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힘든 날들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도저히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김 씨를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국에서의 생활이 오래도록 이어졌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김 씨는 자신의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입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적 헤어졌던 아버지를 찾아 연락을 해보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단절돼 있던 상태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월세가 저렴한 주택 2층 방을 얻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난방이 되지 않아 추위에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벽면에 구멍이 나 있어 마아늘기는 했지만 외풍이 심하게 유입이 되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김 씨는 저렴한 전기장판을 사서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는데 얼마까지 못하고 고장이 나서 얇은 이불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함에도 망막박리 질환을 앓고 있어서 햇빛에 노출이 될 경우 안구 통증이 발생,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한국으로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해서 건강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어려워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위를 덜어주고자 전기장판을 구입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안과질환은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 씨는 따뜻한 나라에서 살다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다보니 너무 힘이 들었고 사는 환경이 안 좋아 밤마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한국을 떠나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많아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김 씨가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60대 김 모 씨 가정에 지원한 전자렌지

20대 김 모 양 가정에 지원한 압력밥솥

TV장식장 교체 전·후 모습

60대 초반 김모 씨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는 현재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발달장애로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자폐를 가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심한 장애로 인해 부부가 아들에게 매달려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들을 서로 돌보면서 생활해 왔는데 갈수록 어려워진 가정 경제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김 씨가 양육을 맡아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재활을 하던 중 두개골이 함몰이 되어 재수술을 받았고, 병원비는 긴급의료비를 통해 수납을 했다고 합니다. 퇴원 이후로는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인 활동이 어려워 기초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급비 이외에는 별도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대출 받았는데 수술과 입원 등으로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을 통해 현재는 매 월 3만 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상 생활이 어려워 혼자서는 무언가를 독립적으로 하기 힘든 상태에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몸이 안좋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를 못하다보니 위생상태가 좋지 못하고 가구들이 오래되어 교체가 시급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기가 힘들어 간편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으며 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전자렌지가 없어서 간편식들이 있어도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는 전자렌지와 가구들을 구입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김 씨는 몸이 건강해야 아들을 잘 돌볼 건데 신경을 못써주어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살림살이와 전자렌지를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빨리 건강도 회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대 김모 양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양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양의 어머니는 뇌경색, 심근경색, 당뇨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다보니 아버지의 일정치 않은 근로수입과 김 양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뼈와 손목뼈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의료비가 늘어 경제적인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힘든 생활이 이어지자 긴급지원 신청을 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양의 아버지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되지만 아내의 간병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워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김 양은 학업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해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 전기밥솥과 전자렌지가 고장이 나 여러 차례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장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부모에게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렌지와 밥솥을 구입해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 양은 부모님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고생하고 계신데 학생 신분이라 도움이 못되어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 양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있는데 씩씩하게 생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문의사항 (그 밖의 센터에 대한 문의도 가능)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 N JOY"
전화 : 062) 431-0918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